

## 미니테스트 제 5 회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20행언나-21

- ① 조선 시대에는 지체 높은 관리의 행차 때 하인들이 그 앞에 서서 꾸짖는 소리를 크게 내어 행차에 방해되는 사람을 물리쳤다. 이런 행위를 ‘가도’라 한다. 국왕의 행차 때 하는 가도는 특별히 ‘봉도’라고 불렀다. 가도는 잡인들의 통행을 막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벽제’라고도 했으며, 이때 하는 행위를 ‘벽제를 잡는다.’라고 했다. 가도를 할 때는 대체로 ‘물렀거라’, ‘에라, 게 들어 섰거라’고 외쳤고, 왕이 행차할 때는 ‘시위 ~’라고 소리치는 것이 정해진 법도였다. 『경도잡지』라는 문헌을 보면, 정1품관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행차 때 내는 벽제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고, 그 행차 속도도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행차를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 벼슬아치의 위엄을 차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정승 아래 벼슬인 병조판서의 행차 때 내는 벽제 소리는 날래고 강렬했다고 한다. 병조판서의 행차답게 소리를 크게 냈다는 것이다.
- ② 애초에 가도는 벼슬아치가 행차하는 길 앞에 있는 위험한 것을 미리 치우기 위한 행위였다. 그런데 나중에는 행차 앞에 방해되는 자가 없어도 위엄을 과시하는 관례로 굳어졌다. 가도 소리를 들으면 지나가는 사람은 멀리서도 냉큼

끓어앉아야 했다.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면 엄벌을 면치 못했다. 벼슬아치를 경호하는 관원들은 행차가 지나갈 때까지 이런 자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둬 두었다가 행차가 지나간 뒤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그러니 서민들로서는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해 다른 길로 통행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 ③ 서울 종로의 피맛골은 바로 조선 시대 서민들이 종로를 오가는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해 오가던 뒷골목이었다. 피맛골은 서울의 술한 서민들이 종로 근방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오가던 길이었고, 그 좌우에는 허름한 술집과 밥집도 많았다. 피마란 원래 벼슬아치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보다 높은 관리를 만날 때, 말에서 내려 길옆으로 피해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신분이 낮은 서민들은 벼슬아치들의 행차와 그 가도를 피하기 위해 뒷골목으로 다니는 행위를 ‘피마’라고 불렀다. 피맛골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일종의 해방구였던 셈이다.

- ① 삼정승 행차보다 병조판서 행차 때의 벽제 소리가 더 컸다.
- ② 봉도란 국왕이 행차한다는 소리를 듣고 끓어앉는 행위를 뜻한다. → 하인들이 행차에 방해되는 사람을 물리치는 행위
- ③ 벼슬아치가 행차할 때 잡인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서민들에 대한 감시가 증가했다. → 양반들
- ④ 조선 시대에 신분이 낮은 서민들은 피마라는 용어를 말에서 내려 길을 피한다는 의미로 바꿔 썼다. → 원래 의미
- ⑤ 가도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벼슬아치들의 행차를 피하기 위해 형성된 장소도 서울에만 있다. → 양반들

문 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0행언나-27

1. '공립학교 인종차별 금지 판결의 준수를 종용하면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그 준수를 거부하니 이는 기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은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법률에 대해서는 그를 거부하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의한 법률은 결코 법률이 아니다.'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살피 답할 수 있습니다. 곧, 법률에는 정의로운 법률과 불의한 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이 두 가지 법률 간 차이는 무엇입니까? 법률이 정의로운 때가 언제이며, 불의한 때는 언제인지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률들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률이라는 점에서 정의로운 법률과 불의한 법률 모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약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법률은 신의 법, 곧 도덕법에 해당한다는 데에 동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법률은 그 도덕법에 배치되는 규약이라 할 것입니다. 도덕법을 자연법이라 표현한 아퀴나스의 말을 빌리면, 불의한 법률은 결국 사람끼리의 규약에 불과합니다. 사람끼리의 규약이 불의한 이유는 그것이 자연법에 기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인간의 성품을 고양하는 법률은 정의롭습니다. 인간의 품성을 타락시키는 법률은 물론 불의한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허용하는 법률은 모두 불의한 것인데 그 까닭은 인종차별이 영혼을 왜곡하고 인격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인종을 차별하는 자는 거짓된 우월감을, 차별당하는 이는 거짓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느끼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영혼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서 올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하도록 합니다.

4. 따라서 인종차별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불건전할 뿐 아니라 최악이며 도덕적으로 그른 것입니다. 분리는 곧 최악이라 할 것인데, 인간의 비극적인 분리를 실존적으로 드러내고, 두려운 소외와 끔찍한 죄악을 표출하는 상징이 인종차별 아니겠습니까? 공립학교 인종차별 금지 판결이 올바르게 그 준수를 종용할 수 있는 한편, 인종차별을 허용하는 법률은 결단코 그르기에 이에 대한 거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보 기>

- ㉠ 인간의 성품을 고양하는 법률은 도덕법에 해당한다.
- ㉡ 사람끼리의 규약에 해당하는 법률은 자연법이 아니다.
- ㉢ 인종차별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법률은 신의 법에 해당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인종차별 허용 → ~정의 → ~도덕법

인간의 성품 고양 → 정의 → 도덕법

문 3. 다음 글의 <실험>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행언나-17

비활성 기체인 라돈에는 질량이 다른 39종의 동위원소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자연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은 질량수가 222인  $^{222}\text{Rn}$ 과 질량수가 220인  $^{220}\text{Rn}$ 이다.  $^{222}\text{Rn}$ 과  $^{220}\text{Rn}$ 의 화학적 성질은 매우 비슷하지만, 반감기가 서로 다르다. 반감기는 방사성 붕괴를 통해 원래 양의 절반이 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방사성 물질마다 고유한 반감기가 있다.  $^{222}\text{Rn}$ 은 반감기가 3.8일인 반면,  $^{220}\text{Rn}$ 은 55.6초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탓에  $^{220}\text{Rn}$ 의 경우  $^{222}\text{Rn}$ 과 달리 빠른 속도로 붕괴하여 긴 거리를 이동하지 못하므로 인체에 도달할 확률이 낮다.  $^{220}\text{Rn}$ 은 발생원으로부터 50 cm 이상 떨어지면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며,  $^{222}\text{Rn}$ 에서 발생한 방사선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거의 균일하게 분포한다.

—<실험>—

같은  $^{222}\text{Rn}$ 과  $^{220}\text{Rn}$ 에서 나온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가지고 석재 A와 석재 B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을 밀폐된 실험실에서 측정하였다. 방사선량은 석재로부터 0 cm, 20 cm, 60 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되었다.  $^{222}\text{Rn}$ 과  $^{220}\text{Rn}$  이외의 물질에 의한 영향은 없었다.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측정된 방사선량은 +의 개수에 비례한다.

석재로부터의 거리 (cm)	0	20	60
석재의 종류			
A	++++	+++	+
B	+	+	+

- ① A는  $^{220}\text{Rn}$ 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B는  $^{222}\text{Rn}$ 과  $^{220}\text{Rn}$ 을 모두 포함한다.   
③ 0 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A의 방사선은 모두  $^{222}\text{Rn}$ 에서 나온 것이다.   
④ 20 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방사선 중  $^{222}\text{Rn}$ 에서 나온 방사선량은 B보다 A가 더 많다.   
⑤ 60 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A의 방사선과 B의 방사선은 모두  $^{222}\text{Rn}$ 에서 나온 것이다.

문 4. 다음 <표>는 A 지역 물류산업 업종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자나-16

<표> A 지역 물류산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 억 원, 명)

구분 \ 업종	종합 물류업	화물 운송업	물류 시설업	물류 주선업	화물 정보업	합
업체 수	19	46	17	23	2	107
매출액	319,763	32,309	34,155	10,032	189	396,448
종업원	22,436	5,382	1,787	1,586	100	31,291
전문인력	3,239	537	138	265	8	4,187
자격증 소지자	1,830	316	80	62	1	2,289

※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전문인력임.

<보 기>

- ㄱ. 업체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종합물류업'이다.
- ㄴ. 종업원 중 자격증 소지자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매출액당 전문인력 수가 가장 많은 업종과 동일하다.
- ㄷ. 업체당 전문인력 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물류시설업'이다.
- ㄹ. 업체당 종업원 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종업원 중  
전문인력 비중도 가장 낮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5. 다음 <표>는 2014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9행자가-29

<표 1> 1회당 구매금액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천 건)

1회당 구매금액	수입통관 건수
50달러 이하	3,885
50달러 초과 100달러 이하	5,764
100달러 초과 150달러 이하	4,155
150달러 초과 200달러 이하	1,274
200달러 초과 1,000달러 이하	400
1,000달러 초과	52
합계	15,530

$7. 15,530 \times \frac{1}{3} < 15,600 \times \frac{1}{3} = 5,200$

$15,530 \times 35\% < 15,600 \times 36.6\%$   
 $= 5,200 + 520 = 5,720 < 5,764$

$L. 200\text{달러} \downarrow = 200\text{달러} \uparrow = 30\uparrow : 1 \text{ (상대비)}$

$\rightarrow 200\text{달러} \uparrow < \text{전체} \times \frac{1}{31} \text{ (상대비)}$

$452 < 15,530 \times \frac{1}{31} \approx 501$

<표 2> 품목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천 건)

구분 품목	일반·간이 신고	목록통관	합
의류	524	2,438	2,962
건강식품	2,113	0	2,113
신발	656	1,384	2,040
기타식품	1,692	0	1,692
화장품	883	791	1,674
핸드백	869	395	1,264
완구인형	249	329	578
가전제품	89	264	353
시계	195	132	327
서적류	25	132	157
기타	1,647	723	2,370
전체	8,942	6,588	15,530

<보고서>

2014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을 ㉠ 1회당 구매금액별로 보았을 때, '50달러 초과 100달러 이하'인 수입통관 건수의 비중이 전체의 35% 이상으로 가장 크고, '50달러 이하'가 25%, '100달러 초과 150달러 이하'가 27%, '150달러 초과 200달러 이하'가 8%였다. 그리고 ㉡ 1회당 구매금액이 200달러 이하인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총 건수가 200달러 초과인 수입통관 총 건수의 30배 이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대부분 2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위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달러 초과' 고가물품의

경우, 전체의 0.3% 정도로 비중은 작았으나 총 5만 2천 건 규모로 2009년 대비 767% 증가하며 전체 해외 직접 구매 증가 수준(330%)에 비해 상대적으로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세금을 내더라도 가격 차이 및 제품 다양성 등으로 인해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품목별 수입통관 건수의 비중은 '의류'가 전체 수입통관 건수의 15% 이상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건강식품', '신발' 순이었다. ㉣ '핸드백', '가전제품', '시계'의 3가지 품목의 수입통관 건수의 합은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하였다. ㉤ 수입통관을 일반·간이 신고로 한 물품 중에서 식품류('건강식품'과 '기타식품') 건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ㄹ

$D. 15,530 \times 15\% < 16,000 \times 15\% = 2,400 < 2,962$

$E. 1,264 + 353 + 327 = 1,800 + 130 + 14 = 1,944$

$15,530 \times 12\% < 16,000 \times 12\% = 1,920 < 1,944$

$F. 2,113 + 1,692 < 4,000 < 8,942 \times 50\%$

문 6. 다음 <표>와 <그림>은 ‘갑’요리대회 참가자의 종합점수 및 항목별 득점기여도 산정 방법과 항목별 득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사가-30

<표> 참가자의 종합점수 및 항목별 득점기여도 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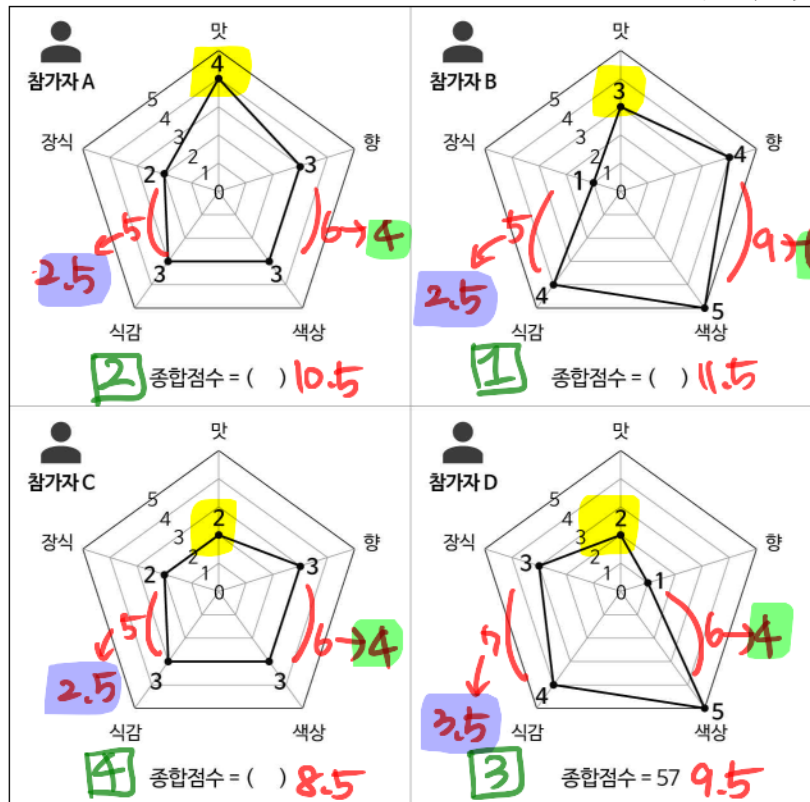
- 종합점수 = (항목별 득점 × 항목별 가중치)의 합계
- 항목별 득점기여도 =  $\frac{\text{항목별 득점} \times \text{항목별 가중치}}{\text{종합점수}}$

항목	가중치
맛	6
향	4
색상	4
식감	3
장식	3

\*가중치를 6으로 통일 → 관찰값(항목별 득점) 반영

\*가중치 같은 항목끼리 (향-색상/식감-장식) 묶어서 계산

<그림> 전체 참가자의 항목별 득점 결과  
(단위: 점)



※ 종합점수가 클수록 순위가 높음.

<보 기>

- ㉠ 참가자 A의 ‘색상’ 점수와 참가자 D의 ‘장식’ 점수가 각각 1점씩 상승하여도 전체 순위에는 변화가 없다.
- ㉡ 참가자 B의 ‘향’ 항목 득점기여도는 참가자 A의 ‘색상’ 항목 득점기여도보다 높다.
- ㉢ 참가자 C는 모든 항목에서 1점씩 더 득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순위가 될 수 없다.
- ㉣ 순위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맛’ 항목 득점기여도가 높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7. 변화점수 상·하폭 (점 미만) ∴ 순위 그대로

$$\begin{array}{ccc} B & \xleftarrow{10\% \uparrow} & A \\ \text{L. } \frac{4}{11.5} & \text{vs} & \frac{3}{10.5} \end{array}$$

$$\text{㉢. } 8.5 + (1 + \frac{2}{3} \times 2 + \frac{1}{2} \times 2) = 10.5 + \frac{4}{3} > 11.5(B)$$

∴ 1위 가능

$$\begin{array}{ccc} C(4위) & & D(3위) \\ \text{㉣. } \frac{2}{8.5} & \text{vs} & \frac{2}{9.5} \end{array}$$

문 7. 다음 <표>는 2017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중 **업종 A ~ D에 해당하는 사업체 수의 합은?** 2020절자모-21

<표> 2017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사업실적  
(단위: 억 원, 개)

구분 \ 업종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사업체 수
여객운송업	9570	9010	560	180
화물운송업	58,279	56,839	1,440	359
대리중개업	62,276	59,618	2,658	1,689
창고업	14,480	13,574	906	166
하역업	15,2980	12,8560	2,4420	650
항만부대업	14,225	13,251	974	323
선용품공급업	58,329	54,858	3,471	1,413
수리업	8,275	7,493	782	478
전체	232,119	219,390	12,729	4,511

※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보고서>—

2017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전체 매출액은 232,119억 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매출액은 대리중개업이 가장 많고, 영업이익은 **A**가 가장 많다.

2017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약 5.5%이다. **B**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10% 이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여 해운항만산업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2017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전체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51억 원 이상이다. **C**는 사업체당 매출액이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전체의 사업체당 매출액보다 적지만,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한다. 반면, **D**는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업종 중 사업체당 영업비용과 사업체당 매출액이 모두 가장 적다.

- ① 1,032

② 1,967

③ 2,232

④ 2,279

⑤ 3,333

$65 + 323 + 1413 + 478 = 2,100 + 160 + 19 = 2,279$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2020행상나-26

① 개발도상국으로 홀리드는 외국자본은 크게 원조, 부채, 투자가 있다. 원조는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돈으로, 흔히 해외 원조 혹은 공적개발원조라고 한다. 부채는 은행 융자와 정부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 와 외국인 직접투자 로 이루어진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회사 경영에 일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투자이다.

②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이러한 외국자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해외 원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③ 부채는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은행 융자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유명하다. 예컨대 1998년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은행 융자 총액은 500억 달러 였다. 하지만 1998년 러시아와 브라질, 2002년 아르헨티나 에서 일어난 일련의 금융 위기가 개발도상국을 강타하여 1999 ~ 2002년의 4개년 동안에는 은행 융자 총액의 연평균 -65억 달러가 되었다가, 2005년에는 670억 달러가 되었다. 은행 융자만큼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니지만, 채권을 통한 자본 유입 역시 변동성이 크다. 외국인은 1997년에 380억 달러의 개발도상국 채권을 매수했다. 그러나 1998 ~ 2002년

에는 연평균 230억 달러로 떨어졌고, 2003 ~ 2005년에는 연평균 440억 달러로 증가했다.

④ 한편 포트폴리오 투자는 은행 융자만큼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채권에 비하면 변동성이 크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1997년의 310억 달러에서 1998 ~ 2002년 에는 연평균 90억 달러로 떨어졌고, 2003 ~ 2005년에는 연평균 410억 달러에 달했다.

①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해외 원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③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에는 해외 원조, 은행 융자,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다.

④ 개발도상국에 대한 2005년의 은행 융자 총액은 1998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 2005년(670억 달러) > 1998년(500억 달러)

⑤ 1998 ~ 2002년과 2003 ~ 2005년의 연평균을 비교할 때, 개발 도상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채권보다 증감액이 크다.

$$320 > 210$$

$$230 + 210 \rightarrow 440$$

$$90 + 320 \rightarrow 410$$



문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2020행상나-36

甲국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를 선정하고자 한다.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육성 의지가 있는 곳 중 합산점수가 높은 4곳의 산업단지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로 선정한다.

<평가 기준>

○ 산업단지 내 기업 집적 정도

산업단지 내 기업 수	30개 이상	10 ~ 29개	9개 이하
점수	40점	30점	20점

○ 산업단지의 산업클러스터 연관성

업종	연관 업종	유사 업종	기타
점수	40점	20점	0점

※ 연관 업종: 자동차, 철강, 운송, 화학, IT

유사 업종: 소재, 전기전자

○ 신규투자기업 입주공간 확보 가능 여부

입주공간 확보	가능	불가
점수	20점	0점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한다.

- 1) 산업클러스터 연관성 점수가 높은 산업단지
- 2) 기업 집적 정도 점수가 높은 산업단지
- 3) 신규투자기업의 입주공간 확보 가능 여부 점수가 높은 산업단지

<상 황>

산업단지(A ~ G)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산업 단지	산업단지 내 기업 수	업종	입주공간 확보	지자체 육성 의지
A	58개 40	자동차 40	가능 20	있음
✓B	9개 20	자동차 40	가능 20	있음
C	14개 30	철강 40	가능 20	있음
✓D	10개 30	운송 40	가능 20	없음
E	44개 40	바이오 0	가능 20	있음
ⓕ	27개 30	화학 40	불가 0	있음
✓G	35개 40	전기전자 20	가능 20	있음

① B는 선정된다. A, B, C, G 선정

✓ A가 '소재'산업단지인 경우 F가 선정된다. → 비합리

③ 3곳을 선정할 경우 G는 선정되지 않는다. B vs G → B 선정 by 1)

④ F는 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3개 더 있다면 선정된다. B vs F vs G → B, F 선정 by 1)

⑤ D가 소재한 지역의 지자체가 육성 의지가 있을 경우 D는 선정된다. A, C, D 선정되고 B vs G 경합

합산점수  
②  
100 → 80 ('소재'인 경우)  
80  
90  
⑤  
X → 90 (육성의지 '있음')  
60  
③  
70 → 80 (기업 + 3개)  
80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 ~ 丁 4명이 모두 외출 준비를 끝내는 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은? 2020행상나-33

甲 ~ 丁 4명은 화장실 1개, 세면대 1개, 샤워실 2개를 갖춘 숙소에 묵었다. 다음날 아침 이들은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을 이용한 후 외출을 하려고 한다.

-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이용을 마치면 외출 준비가 끝난다.
-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순서로 1번씩 이용한다.
- 화장실, 세면대, 각 샤워실은 한 번에 한 명씩 이용한다.

<개인별 이용시간>

(단위: 분)

구분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甲	5	3	20
乙	5	5	10
丙	10	5	5
丁	10	3	15

- ☒ ① 40분

☐ ② 42분
- ☐ ③ 45분

☐ ④ 48분
- ☐ ⑤ 50분

